



2010 신년특집

- 패션 유통-이젠 혁신이다
- 신유통 브랜드 시대 A1
- 패션업계 동향 A2
- 유통업계 동향 A3
- 패션업체 글로벌 프로젝트
- 대형사 A4
- 중견사 A5
- 패션 전문인 대상 설문조사
- 한국형 글로벌 브랜드 현주소 A6
- 신년 인터뷰
- 패션그룹장 최영호 회장 A7
- 庚寅년 주목받는 패션인 A8
- 범띠상 패션3인 새해 포부 A9
- 호랑이에 호피패션 뜬다 A11
- 향토 패션 전문기업 파워 행보 A12
- 특별 2010년 사업 전략 동향
- 여성복 A13
- 남성복 A14
- 캐주얼/스포츠 A15
- 골프웨어/아웃도어 A16
- 유아복/아동복 A17
- 인너/제외/잡화 A18
- 서울을 일류 패션도시로
- 서울시 패션 육성 지원책 A19



제이디엑스 TEL 02, 2635, 2081

전속모델 오윤아



◇ 패션강국 코리아... 세계를 호령하라 ○...경인(庚寅)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호랑이, 그 중에서도 60년 만에 한 번 돌아온다는 백호랑이 해다. 백호랑이 해는 황금패지 해 못지않은 길조의 해로 알려져 있다. 호랑이의 기백과 친취적인 기상으로 올 한해 한국패션이 세계를 호령하면 좋겠다. 사진은 서울대공원의 시베리아 호랑이 모습. 사진/이홍건 기자

올 섬유·패션 예산 대폭 늘린다

지정부 등 1300억 지원
전년대비 20~30% 확대

정부와 서울시가 올해 섬유·패션 산업 지원 예산을 크게 확대했다. 지식경제부와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발표한 올 섬유·패션 산업 지원 예산에 의하면 총 금액이 약 1300억으로 전년 대비

20~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는 자체 예산으로 산업원천기술개발 255억, 섬유생활산업 활성화기반마련 68억, 섬유산업스트림간협력사업 320억, 슈퍼소재 육성제품사업화 100억, 전문생산기술연구소지원 39억 등 총 781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작년 578억원에 비해 약 35%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는 계속 과제와 협력 과제인 기술혁신, 인력양성, 지역산업과제 예산은 빠진 것으로 이달 중 확정될 이월 예산을 포함하면 1100억원을 넘을 전망이다. 올해 예산 중 섬유산업스트림간 협력사업은 지난해 300억원에서 20억 증액했으며, 아라미드, 에틸렌 섬유 등을 제품화하는 슈퍼소재육성제품사업화에 신규로 100억원을 배정했다. 특히 지경부는 슈퍼섬유, 친환경 섬유, 나노섬유, 스마트섬유 등 4

개 분야 기술 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신섬유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으로, 올 상반기 연구개발 과제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신섬유 개발 로드맵을 마련, 내년부터 본격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섬유산업연합회는 2011년부터 20년까지 1조1천억원을 투자해 110개 과제를 육성할 것을 정부에 요청해 놓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을 세계 일류 패션도시로 만든다는 목표 아래 최근 △패션산업 기반조성 △해외 마케팅 지원 △신진인력 양성 △패션산업 활성화 지원 △동대문 상권 활성화 등 5개 분야 14개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0년 서울패션산업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전체 예산은 약 141억원으로 지난해 110억원보다 28% 증가했다. 이는 패션지원센터 운영과 동대문 철단의류 기술센터 건립 등 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이 포함

됐기 때문이다. 예산 규모가 가장 큰 패션산업 활성화 지원 중 서울패션위크 개최는 올해부터 관 주도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조직위원회를 독립 법인으로 분리해 운영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 문화 콘텐츠와 연계한 국내 디자이너의 해외 진출과 신진 디자이너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다음달 열리는 뉴욕패션위크 기간 중 현지에 패션문화 소품을 구축, 박종우, 정구호, 앤디&팀(김석원, 윤원정), 이도이, 정구호, 정옥준, 홍승원 등 디자이너 6명의 의상을 비롯 한국 음식과 영화, 공연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4대 컬렉션에 이 같은 소품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지원 예산은 지난해 25억보다 5억 많은 30억원을 책정해 놓고 있다. 박우혁 기자 hyouk@apparelnews.co.kr

'이랜드' '빈폴' 글로벌화 선두주자

본지 설문조사서 압도적 지지

국내 패션 업체 관계자들은 현재 해외에 진출해 영업 중인 국내 브랜드 중 가장 성공적인 브랜드로 '이랜드'를 꼽았다.

또 앞으로 한구형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브랜드로는 '빈폴'을 택했다.

본지가 신년 특집호를 준비하면서 패션 업체 대표 및 본부장 5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복수응답)를 벌인 결과 현재 해외에 진출해 영업 중인 브랜드 중 가장 성공적이라고 판단되는 브랜드로는 '이랜드'(37%), '스코필드'(12%), '빈폴'(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A6면

'없다'는 응답도 10%에 달했으며, '더블유닷', '버커루', '이엑스알', 'MCM' 등이 각각 4%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랜드'와 '스코필드'를 뽑은 이유로는 빠른 진출과 장기적인 투자를 통한 인프라 구축으로 조기 현지화가 이뤄졌고 글로벌 생산기지를 확보, 안정된 시스템과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많은 노하우가 축적됐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앞으로 한구형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브랜드로는 '빈폴'(21%)이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이랜드가 최근 새롭게 선보인 SPA 브랜드 '스파오'(17%)가 신규에도 두 번째로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 '없다'는 응답도 15%로 높았으며, '버커루', '메이직하

우스', '이랜드', 'MCM'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빈폴'은 국내에서 꾸준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탄탄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한 지속적 투자마인드와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은혜 기자 ce@apparelnews.co.kr

섬산연, 11일 신년인사회

섬유산업연합회(회장 노희찬)가 오는 11일 섬유센터 3층 이벤트를 열어 정운찬 국무총리, 구희의원, 주한대사, 경제단체장 등 각계 주요 인사와 섬유·패션업계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섬유·패션인사회'를 개최한다. 이날 인사회는 신년하례 리셉션과 축하공연(음악회), 만찬 등으로 진행된다. 박우혁 기자 hyouk@apparelnews.co.kr

금융 파이낸싱 안내

판매 불황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류 관련 업체 여러분께 매출, 채권, 양수관리(진성어음 할인) 전문업체 신우퍼스스가 최고의 신용과 신속,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신우퍼스스

TEL : 02-778-2277 FAX : 02-778-3131
H-P : 011-9703-9600 (대표 : 이광준)
서울시 중구명동1가 60개방빌딩 1605호

(주)ADP국제운송
중국, 베트남, 홍콩, 일본, 인도네시아 해외발송전문

www.adpair.co.kr

서류, 샘플, 원단, 의류부자재, 기타(상당환영) | 대표 전화 : 1588-1330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61-39 ADP빌딩 | 영업부장 : 017-280-5664

SIEG FAHRENHEIT

www.siegfahrenheit.co.kr 대리점개설문의 02.3274.6496 02.3274.5937